



## 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 능력 열위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.

- 2010년 자영업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,847만 원, 평균 부채는 6,896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.8%로 나타남.
  - 이는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가구 자산 대비 부채 비중 17.3%와 비슷한 수준이며, 전체 가구가 15.6%, 상용 임금근로자 가구가 15.5%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.
-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도 자영업 가구 자산(4억 4,828만 원) 중 부채(9,927만 원)가 차지하는 비중이 22.1%로 높게 나타남.
  - 전체 가구의 경우 21.3%, 상용 임금근로자 가구는 21.1%로 나타남.

■ 또한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이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.

-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78.7%로 상용 임금근로자 가구 37.2%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.
- 부채를 보유한 가구만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,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06%로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.
  - 이는 상용 임금근로자 가구 56.1%,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가구 90.6%보다 높은 수치임.

■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위 생계형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금리인상 등의 환경변화에 대해 자영업 가구의 가계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됨.

(자영업 부채상환능력, 임금근로자 절반 등, 연합뉴스 등, 6/7)